함께 하는 문화 · 예술의 도시건설

양주시 2007 장흥미술문화 축제 성황리에 마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2007 장흥미술문화축제가 양주 장흥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이루어 졌다.

장흥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특색있는 문화시설의 관람 및 체험은 물론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를 함께 비교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이번 행사는 첫날 6일에 문화여행, 어린이체험프로그램, 캐나다 대표 브랜드 전, 캐나다 음식 페스티벌, 장흥 아뜰리에 페스티벌, 시민참여공연과 개막 축하 공연으로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인 송승환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캐나다 예술영화 및 애니메이션 상영과 7일 양주상여 회다지 소리 특별공연, 유열과 웅산밴드 〈영화속의 미술〉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이 4천여명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

축제는 장흥 청암 민속박물관에는 오전 10시부터 전통 민속놀이(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행사와 자생수목원은 아로마 향초 만들기 및 야생화 옮겨심기 장흥아트파크는 작가와 함께하는 '나도 예술가' 행사가 이루어 졌다.

송암 천문대 플라네타리움에서는 밤하늘을 그대로 제헌한 돔시어티 별자리와 천문현상 관람을 하고, 자연과 우주체험 '내가 만든 양광성도, 풀로 만든 방아깨비, 아빠 엄마와 함께 그리는 태양'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신비로운 우주체험 행사도 이루어졌다.

2007 장흥미술문화축제가 양주 장흥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이루어 졌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장흥미술축제의 아쉬움을 알리고 2008년의 새로운 변화의 축제를 염원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느낄 수 있는 불꽃놀이를 끝으로 양주 장흥미술문화축제를 마무리 했다.

나희남 장흥면 주민자치위원장은"양주 장흥미술문화축제를 통해 장흥의 옛 유흥 중심지에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장흥으로서의 변화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또한 천연 자원이 수려한 장흥지역을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미술문화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청암 민속박물관, 장흥아트파크, 송암천문대, 장흥자생수목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은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지역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양주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명문사단

육군 65사단 부대창설 30주년 및 대통령 부대표창

65사단은 지난 10월1일 사단 사령부에서 제 59주년 국군의 날을 경축하고 부대창설 30주년과 2007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을 자축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매년 국군의 날을 맞아 수여하는 대통령 부대표창은 군의 최고 영예라 할 수 있으며, 65사단은 지난 1977년 사단 창설 이후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날 오전 양주시 충혼탑 참배행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사단의 기념행사는 오후에는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 부대기 환영행사, 기념행사, 기념탑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어 그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위치에서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소임완수를 위해 노력한 장병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전군 최고의 명문사단임을 자축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30년의 전통에 빛나는 65사단은 그동안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유사시 예비전력의 극대화를 통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쌍용 훈련시는 최초로 서바이벌 및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 성과를 극대화했으며, 최근에는 병영문화 혁신은 위로부터의 변화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변화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상병을 대상으로 한 병영혁신 캠프인 'Milmul Innovation Camp'를 추진하는 등, 육군의 문화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부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유대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부대상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위상에 걸 맞는 명문사단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65사단은 지난 10월1일 사단 사령부에서 제 59주년 국군의 날을 경축하고 부대창설 30주년과 2007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을 자축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변화와 개혁 실천하는 소방서 만들자"

동두천소방서, 제19대 홍진영 서장 취임

동두천소방서는 10월2일 3층 강당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홍진영(54세) 소방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홍진영 서장은 지난 7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29여년간 군포소방서 방호계장, 시흥소방서 방호과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담당, 수원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소방 관료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방행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역특성을 최우선한 소방행정 전문가로 자타로부터 인정받아 왔으며, 시민 가까이에서 잔잔한 감동과 사랑을 전하는 참된 소방관이라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홍진영 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는 건강한 소방서, 시(군)민들과 함께 하는, 강인한 소방관으로 거듭나 줄 것과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소방서는 10월2일 3층 강당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홍진영 소방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연천중학교장 학교에 장학금 3천만원 기탁

연천과 학생 사랑의 마음을 담아 면학분위기 조성

원화식 연천중고등학교장이 연천중·고등학교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장학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탁하였다.

지난 10월3일 제50회 연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원화식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천을 지극히 사랑하는 연천인으로서 연천의 발전은 바로 학교 발전과 직결되어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우선으로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면학분위기 조성이다. 학생들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학력을 길러주고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장학금을 마련하였다. 해가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연천과 점점 소규모화 되어가는 학교 실정이 안타깝다.교사들은 연천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주기 바라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연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기탁한 장학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적립하여 온 연천사랑의 결실이다.

원화식 교장은 6.25 이후 수복과 동시에 연천에 들어와 연천중학교를 다녔고 그 후 교직생활 37년 중에 29년을 연천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여 연천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학교가 발전해야 연천지역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소 신념대로 학교교육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왔으며 2008년 2월말 정년을 앞두고 학교 사랑에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개교 50주년을 맞은 연천고등학교의 역사관을 마련하여 총동문회 체육대회와 맞추어 개관식을 하였으며 역사관에는 지난 50년 동안의 교육활동을 게시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천중고등학교의 혼과 열정을 담아 학생들에게는 애교심과 애향심을 키우고 졸업생들에게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교사들에게는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 끝에 개관을 한 것이다.

연천교육청 양기석 교육장은 "원화식 교장의 연천사랑, 아이들 사랑에 감동 받았고 연천교육가족이 모두 본받아야 한다. 연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더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시민들을 위한 즐거운 공간 마련

동두천시, 문화의 달 다양한 행사 개최

동두천시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는 10월5일부터 8일까지 '제17회 동은서도회 서예전'이 개최되었다. 전시된 작품은 10월19일까지 동두천시청 로비에서 동은서도회 서예작품을 볼 수 있다.

한국서예문인화연구회 주최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서예대전은 신인작가 발굴과 서예인구 확대, 전통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지난 8월부터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여 300여점 작품을 접수, 그 중에서 엄선된 120여편의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행사주최 관계자는 소요산 전국서예대전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서예공모전으로 육성하기 위해 회원들의 열정을 담아갈 것이며 단풍성수기에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묵향의 추억'을 선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동두천 중앙역 2층 로비에서는 26일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린다. '제8회 동두천사진동우회 사진전'이 전문 전시공간이 아닌 전철역사 내의 깜짝 전시회를 통해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생활속에서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동두천사진동우회 회원 20명이 일년동안 전국 출사를 통해 심혈을 기울여 앵글에 담아온 풍경사진 60여점의 작품으로서, 10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선보이게 된다.

12일과 13일에는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재래시장을 배경으로 권선징악·인간애·서민 스토리를 주제로 한 뮤지컬 '동두천 블루스'가 공연(3회)되고, 20일 오후 2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유화·수채화·판화 체험행사를 준비한 청소년미술대전 작품 전시, 21일 오후 1시 중앙공원 작은 무대에서 '푸른소리회'의 정기공연, 20일과 21일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는 라이브 가수 및 마술사를 초청한 '가을낭만 콘서트'가 개최된다.

한편 동두천의 최대 문화행사인 제22회 소요단풍문화제는 27일과 28일 소요산에서 각종 시민체험행사, 전문기회공연 연예인 초청 공연,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해 경기의 소금강인 소요산을 찾으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책 기증은 가장 큰 선물!'

경기도교육청 연천중학교에 1,000권의 책 기증

연천관내 학생들은 연천독서파도운동을 타고 그 어느 때보다 책 읽기를 즐겨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비치된 도서가 적고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여 안타까웠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2일(화) 연천중학교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1,000여권의 책을 기증 받았다. 이 행사는 2007 학교도서관 대회(2007.06.04~05)의 향후계획에 의해 '벽지학교 책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10월2일(화) 연천중학교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1,000여권의 책을 기증 받았다.

경기도내 독서환경이 열악한 벽지의 학교도서관에 권장도서를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극대화하여 독서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도서 기증식에서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평생교육체육과 민웅기 과장은 한국도서관협회 선정 도서 및 중등용 도서 1,000여권과 서가(4단1연서가) 1조를 연천중학교에 전달하였다.

연천중학교는 그동안 장서 부족과 열악한 도서관 환경으로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올해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교육청 지원)과 도서기증을 받아 독서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다.

원화식 연천중학교 교장은 "틈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책 읽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책들을 선물로 받아서 참으로 기쁘다.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전교생이 독서 마라톤대회(단체전 독서 풀코스 경주-4220장=8440쪽, 개인전 마라톤 하프 코스 -4220쪽의 책읽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완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기증식에 참여한 손광섭 학무과장은 "독서파도운동은 우리교육청의 핵심사업이다.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을 늘 읽으며 삶의 지혜를 얻고 미래를 개척하는데 이번 도서 기증은 참으로 고마운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제2회 은현나릿물 환경 축제 성황리에

환경 주민이 하나 되는 제2회 은현나릿물 환경축제가 지난 7일 은현면 신청 하수관리센터 내에서 시민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축제는 학생체험학습, 주민발표프로그램, 남녀노소가 즐기는 체험프로그램 등과 나릿물 노래자랑과 부대행사로 문화전시, 체험전시, 특산물전시 판매, 먹거리 장터 등이 행사가 이루어 졌다.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강력 반발

동두천시,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으로 확산 움직임

동두천시는 지난 9월19일 발표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후속조치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 시안에는 지역을 4계 그룹으로 분류하여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동두천시를 부산시, 울산, 창원시와 같은 그룹인 '성장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왔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군이 이전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정책적인 요인을 들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한 동두천시를 성장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균특법 개정 저지 동두천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매주 국회 등 관련부처를 항의 방문 전개할 계획으로, 지난 10월1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래 1,0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9월19일 발표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후속조치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